

중앙아시아에서 드리는 3월 사역 소식

겨울을 지나 따스하고 생동감 있는 봄을 맞이하는가 했는데, 전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초유의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면서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은 초기부터 외부로부터의 항공기 출입을 제한, 금지 조치를 시작하였지만 이곳에도 3월 18일에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3월 12일 사우디아라비아 성지 순례를 다녀온 135명이 돌아온 이후 격리조치를 취했었다. 이들 가운데 18일 날짜로 3명이 발생한 이후 현재 144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 모든 학교에 대한 휴교령을 내린 이후 3월 말에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야간 통행금지와 주간의 통행 제한을 통해 격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식품점과 약국, 은행, 병원만 거주확인서와 신분증, 통행 목적을 소지한 상황에서 제한 이동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공무원들과 병원, 식품점 등을 제외한 일반 회사와 기관들은 대부분 재택 근무로 바뀌었고, 학교기관도 온라인 수업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키르기스 한국대사관과 한인회에서는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나 한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전세계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는 이곳 현지에서의 역할이나 관계, 상황상 계속 남아 있기로 판단하고 남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벌써 3주째 사역지나 다른 출입은 못하고, 동네의 식품가게 가는 일을 제외하고는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일상 생활의 불편함으로 인해 자유로운 일상 생활의 소중함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2013년 이후 7년동안 안식년을 갖지 못해서, 올해는 안식일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본의 아니게 이곳 현지에서 조용히 쉬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불편함 속에 언제 일상의 일터와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도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는 것은, 언제 이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될지 예측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의 일상 생활이 얼마나 소중했나를 절실하게 돌아보며 소망하게 됩니다. 아직 제게는 그리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광야에서의 40년, 포로기 70년, 일제 강점기에서의 36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고 어둡고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 지속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묵상해 봅니다. 우리가 서있는 곳, 바라보아야 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소망없이 지내는 삶의 무력감과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는 삶의 내용은 얼마나 다른지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1. 현지 공동체

지난 3월 23일부터 정부의 권고와 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집회는 모두 중단되었고, 유튜브에 사이트를 개설하여 인터넷 예배로 전환하였습니다. 일년에 한 두차례 특별한 상황이었을 때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예배를 드린 경험은 있지만, 현지의 공동체들이 모두 집회를 중단하고 드러지는 예배라서 마음과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3명 이상의 이웃 간에 만남도 통제하고 있어서, 찬양인도자 1명만 담임 사역자와 함께 유튜브로 실시간 영상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각 개인의 가정에 인터넷이 가능하지 않은 이들도 있어서 참석자들이 눈에 띄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각자가 처한 곳에서 이곳 현지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 불편한 시기를 통과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이 기간동안 성구 암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1장부터 각자 한절씩 암송하여 동영상 찍어 담당자에게 보내면 한 장 전체가 이어지도록 편집하여 모두가 공유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일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고 주일학교도 같은 방식으로 잠언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각자 만날 수는 없지만 영상으로 모습을 볼 수 있어 좋습니다. 유치부 2, 3세부터 참여하여 암송하는 모습이 너무 양중맛고 이쁩니다. 이 시기를 말씀과 기도로 서로를 독려하며 지내는 아름다운 모습에 감동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백두르 목사는 자녀들과 함께 주일학교용 영상을 만들어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고 있어 감사합니다.

2. 한국어 교실(드림 아카데미)

작년 1년동안 항암치료와 안식년으로 한국에 나갔던 드림아카데미의 두 사역자분이 지난 2월 말, 항공기 제한 조치가 내려지던 당일에 현지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치료와 회복의 경과도 좋아서 체중이 줄어든 모습이지만 건강해보여서 감사한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분은 앞으로도 음식과 건강관리가 필요해서 당분간 교사로 참석하지는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작년 9월에 새로이 합류한 세분의 한국 사역자분들과 현지 선생님 두 분이 잘 적응하고, 학생들과도 잘 어울리고 가르치는 일도 익숙해져서 아주 활발하고 좋은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의 대응으로 지난 3월 18일부터 모든 학교들이



3주간에 걸친 휴교령에 들어가게 되어 함께 휴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4월에 들어서면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강의를 재개하기도 어렵고, 장기간 휴강하기도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신과정이나 온라인으로 대안을 만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한국과 달리 인터넷 속도나 개별적인 단말기 보급 상황으로 인해 원활한 대안이 만들어지기는 어려운가 봅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메신저, 채팅 프로그램으로 과제물을 내주고 점검하며 학습진도와 학업능력을 유지하고 끌어올리기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드림아카데미도 '구글듀오'라는 영상 채팅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려고 시험과 연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길어지는 휴교 시간에 저희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한국어를 다시 공부하고 싶다고 많이들 문의하여서 그나마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어렵고 불편한 기간에도 이들 학생들을 보면 늘 새로운 마음과 소망이 생깁니다. 저희 사역자들의 노력과 협력으로 좋은 열매들이 맺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역자 분들 중에는 비자 연장을 위한 업무가 원활하지 않아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모든 분들이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아 활동하며 본인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노숙인들을 위한 사역

아마도 이러한 코로나 방역을 위한 비상사태로 가장 어려운 곳이 이러한 시설들인 것 같습니다. 소망의집에 기거하는 35명의 소망인들은 지금까지 구청에서 제공하는 하루 한끼의 식사와 함께, 길거리에서 빈병을 주워서 팔아 식품을 구입하여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19로 인해 정부의 방역대책으로 이동을 금지하고 있어서 모두 소망의집에서만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세간의 숙소에 모두 지붕 덮는 작업이 끝나서 최소한의 거주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을 돌보고 있는 사사 목사는 구청에서 출입허가서를 받아서 자주 방문하여



내부에서 모임도 하고, 건강도 체크하며 식자재와 필요한 물품들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주변의 경찰과 군인들도 가끔 이들을 위해 식품을 제공해 주기도 하여 어렵지만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소망의 집과 이러한 다른 시설들에 근무하는 이들과 사람들에게 위로부터의 은혜와 사랑이 더 간절해집니다.

4. 신약 주석번역 사역

번역, 감수작업 역시 현재 모든 만남과 모임이 금지되어 모든 일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두명의 번역자를 훈련하는 일도 잠시 중단하고 있고, 다음 단계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기도중에 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장기적으로 잘 훈련되어 좋은 사역자로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정혜브론, 김엘레나 드림